

이홍재의 세상만사



한 번에 500만 원. 삼성 이견회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됐다. 주요 일간지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다들 짐작하실 테고, 회장님께서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지금도 널리 유포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짐작해 왔던 '1% 귀족'들의 일탈(?)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오늘은 국민교육헌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느닷없이 웬 교육헌장이나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이다. 세상에 1%의 귀족이 있다는 '1대 99의 현실'을 우리에게 아픈게 알려 주었던,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다가 '국민모독죄'에 걸려 파면당한 바로 그 사람. 그가 맡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등을 추진한 교육부 핵심 보직이었고, 국정교과서 추진은 유신시절 국민교육헌장 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당시 모든 국정교과서 첫 장에는 헌장 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 학생들은 그리 짧지 않은 전문을 무조건 암기해야 했다. 바로 그 직전 세대가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로 시작하는 박정희의 '혁명공약'을 외워야 했던 것처럼. (군대 시절에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반공을 국수로 삼아먹고'라 했다가 뉘저게 맞았다는 사람도 있다)

어처구니없는 시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 그것도 이젠 몸속 추억이 되었다.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나이이면, 중고등학교 시절 헌장을 못 외워 매를 맞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국민교육헌장과 교육칙어

머리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전문을 달달 외웠던 터라, 헌장의 첫 부분만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지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날 것인가. 세월이 흐른 뒤 한 후배가 들려준 패러디를 듣고 파안대소(破顏大笑)한 적도 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일시적 장난(흥분)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다."

어찌 됐든 우리는 당시 주입식 교육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이 천하의 명문(名文)인 줄로만 알고 자랐다. 그러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리의 교육 지표 사관'이 터지고서야 그것이 권위주의적·국수주의적·전체주의적이어서 아주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악(惡)의 평범성'에 관하여

국민교육헌장 제정 소식에 자유중국의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기선을 빼앗겼다"며 부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한참 뒤였다. 하물며 이게 1890년(메이지 23년) 발표된 일본 무쓰히토(睦仁) 천왕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어찌 알았겠는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에게 제 '교육칙어'는 너무도 친숙했을 것이고, 거기에 담긴 국가주의·집단주의는 그를 매료시켰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같은 문장으로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했겠는가.

일본의 '교육칙어'는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폐지됐다. 국민교육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잔재'라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삭제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선포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이미 까마득히 지난 오래전의 일을 오늘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복고(復古) 취미 때문이 결코 아니다. 지금 박정의 부녀가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이날 행사에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일만 봐도 그렇다. 아베 정권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집단 자위군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까지 개정하려는 마당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자위대 행사로 우리 국민을 욕보인 것이다. 더군다나 그날 한쪽에서는 일본의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던 한 위안부 피해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데..

그런데도 정부 측에선 일본에 행사를 허용하고, 참석 인사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으며, 국내 언론의 취재는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파문이 일자 '정례적인 외교 행사'라느니 '한-일 국방 교류와 협력 차원의 참석'이라느니 하며 일빠진 소리를 늘어났다. 국방 교류와 협력 좋아하네.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교류 협력인가.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지나가다 개똥만 똥아도 '다 노무현 닷'이라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때 그 말은 다소 농(弄)이 섞인 '놀이'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 닷'은 아무래도 '팩트(事實)일 시 분명하다. 놀림개도 침략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군대 창설 기념일을 치를 수 있도록 함의 해 주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역사외식 부재 아니라고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제 설총 대통령의 결재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물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애국심까지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보받고

도 "전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라고 했다던가. 10대 초반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딸로 살다가 퍼스트레이디 역할까지 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한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우습게도 이게 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절대 우위를 주장하는 파시즘의 속성'을 담은 국민교육헌장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교육의 힘은 대단하다. 박 대통령 역시 부진으로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국가주의 가치관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가 갑자기 생각난다. 비록 선량한 사람이라 해도 제대로 박힌 의식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저지러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이야기다.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주인공 한나 슈미트의 '문맹(文盲)'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들의 '무지(無知)'를 상징한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그래도 그녀는 유죄였다.

우리의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훗날 "그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라고 말한 어떤 모든 게 용서될까?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주필)

낭가파르밧 원정대, 짓궂은 하늘에 올라

김미곤·김홍빈 대장, 기상 악화·대원들 부상에 등반 접어
'8000m급 14좌 완등'·'10번째 봉우리 등정' 내년 재도전

낭가파르밧 등반 루트



'산중의 왕(Diamir)'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는 처음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3개 봉우리를 오르고 마지막 14번째 낭가파르밧(Nanga Parbat·8125m) 등정에 도전했던 김미곤(44·한국도로공사산악팀·서영대OB) 대장이 갑작스런 기상 악화와 낙석에 따른 대원들의 부상으로 등반을 접어야 했다.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완등에 도전 중인 '희망 전도사' 김홍빈(52·트렉스타 홍보이사) 대장도 낭가파르밧 원정에 나섰다 같은 이유로 하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8000m급 14좌 완등'과 '10번째 봉우리 등정'이라는 이들의 목표 달성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미곤 대장이 이끄는 '2016 아시아평화



'2016 낭가파르밧 아시아평화원정대' 김미곤 대장이 제2캠프 바로 아래 해발 5900m의 대암벽 구간에서 고정 로프를 설치하며 전진하고 있다.

원정대'와 '2016 김홍빈 낭가파르밧 원정대'는 각각 지난달 22일과 20일 출국해 파키스탄 북부 판잡히말라야의 낭가파르밧 서벽(디아미르벽) 킨스호퍼 루트 해발 4200m 지점에 26일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곳곳에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가 도사린 아이스폴(빙하의 경사가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 지대를 통과해 4800m에 제1캠프를 구축하고, 지난 11일에는 곳곳에 청빙(푸른빛이 도는 빙하)이 노출된 가파른 대암벽 구간을 돌파해 6100m 지점에 제2캠프를 세웠다.

순조롭던 등반은 예년에 비해 빨리 다가온 우기와 이에 따른 잦은 비, 우박처럼 쏟아지는 낙석으로 인해 좀처럼 올라가

를 찾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6일에는 두 명의 대원과 셰르파(등반 도우미)가 낙석에 맞아 팔꿈치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제1캠프가 파손되기도 했다.

날씨가 호전되지 않아 원정대는 지난 25일 긴급회의 끝에 하산을 결정했다.

두 김 대장은 "후퇴를 결정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했다"며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 응원해주는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정대는 현재 하산중이며 다음 달 초 귀국할 예정이다.

김미곤 대장이 이끈 아시아평화원정대에는 이경주(39·조선이공대OB), 조강현(27·한국산업기술대 산악부) 대원과 대만 산악인 2명, 중국 산악인 1명이 함께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고 블랙아크가 후원했다.

김홍빈 대장의 원정대는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단장을 맡았고 나경희(50·금호타이어)·서경재(52·정우종합유통 대표)씨가 대원으로 참가했다.

/파키스탄 낭가파르밧 글·사진=정후식 기자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남도 감시체계 구축 감사팀 가동·외부 평가위원 참여

(속보)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관 주도', '사전 로비'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28일자 1면)과 관련 특별감사팀 가동, 평가위원회 내 외부 청렴윤부즈만 위원 참여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2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감시체계를 구축해 적발될 경우 감정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에 외부 청렴윤부즈만 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40억원 규모의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포함)을 전남개발공사 4명, 전남도 1명, 광주전남연구원 1명, 지역대학 교수 3명 등으로 구성된 바 있다. 또 명단을 평가 3일 전인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에 관련 전남개발공사 측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의 설계 용역평가 기준보다 내부 평가위원의 비중을 오히려 줄였으며, 3일 전 평가위원 공개 역시 국토부 설계 용역평가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람 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건물 내 보라색 상의의 잠바와 열은 초록색 바지를 입고 밤색 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윤택하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공공기관·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한이든 자재한 안내문을 무소용이 됩니다.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가래가 18억원
- 담양군 수북면사무소 북동측인근 임야2428평 계획관리지역 투자까지 대박을 노려보십시오 ▶ 가래가 2억2천 최저가 2억2천
- 담양군 담양읍 5층숙박시설 450평 객실28개 토지40평 투자까지 우수 ▶ 가래가 10억원 최저가 4억5천(감정가 45%)
- 광산군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신창중학교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4억7천만원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가래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2층건물109평 대지155평 코너위치 음식점 추천,주공아파트후문 ▶ 가래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건너편 대로변접 지하1층~지상 3층 근린시설 100평 토지 100평 ▶ 가래가 10억원 최저가 7억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가래가 3억5천 최저가 2억2천만원
- 광산군 대신동 공장 건물172평 토지685평 잡종지 창고 및 교물상추천 도로접 ▶ 최저가 2억7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치,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문자비법,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원국 010-9416-1200